

한국기술사회(회장 황상모)는 지난 2월 26일 한국과학기술회관 대강당에서 '제2회 기술사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과학기술부 장관 표창을 비롯 공로상, 기술상, 장려상 등 21명에 대한 시상식을 가졌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은 '기술사의 날'은 국내 산업기술 진흥 발전을 주도하는 기술사들의 자긍심 고취와 자질 및 기술경쟁력 향상을 통해 첨단 산업기술 강국 구축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정됐다.

이날 기술상을 수상한 6명과 한국과학재단(이사장 김정덕)이 선정한 '3월의 과학기술자상'을 수상한 한국 바이오시스템 기술연구소 김형주 박사의 공적을 소개한다.

한국기술사회 기술상 수상자

유해출 철도청 북부건설사업소 전기과장



변전설비 원격진단시스템, 전차선가선작업차, 가동브래킷, 장간애자, 각종 금구류 등을 개발 국산화함으로써 전기철도 기술 발전 및 전국 전철화 건설에 기여하고 서울 산업대학교 등 각 대학의 전기철도 교과목 개설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했다.

김수보 (주)동일기술공사 사장



장지~수서간 도시고속도로 건설 실시설계 용역, 제3 도시고속도로 건설공사 책임감리 용역 등 주요 고속도로, 교량 등의 설계 감리 업무를 수행하여 토목구조분야와 감리분야, 기간산업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한편, 37건의 실용신안을 등록함으로써 국내 기술력 제고에 앞장서 왔다.

한국과학재단 '3월의 과학기술자상' 수상자

김형주 한국바이오시스템 기술연구소



대부분 수입 기술과 제품에 의존하고 있는 국내 수질환경 계측기 분야에서 독창적인 원천기술인 미생물 연료전지를 이용해 새로운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 계측기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우병용 (주)신광종합기술단 감사



국내·외 종합체육센터, 호텔, 학교 등 많은 건축시공 현장을 경영하면서 신공법 연구·개발 적용을 통해 공사비 절감 및 쾌적한 생활공간 조성 등 국내 건축시공기술 발전에 크게 공헌했다.

강기호 한국설비연구(주) 대표이사



건축물의 기계 설비설계 업무를 수행하면서 모든 에너지 자원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문제와 지구온난화 등 환경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에너지 절감 및 환경친화적 설비시스템 구현에 앞장서 왔다.

강희남 (주)제일엔지니어링 전무이사



홍제천변 도로공사 중 옹벽 설치구간의 토류가시설을 당초 C.I.P 공법에서 H-Pile+도류벽 콘크리트 공법으로 변경 등 공사 공법개선으로 각종 공사비용의 절감 및 공기 단축에 크게 기여했다.

최용석 현대산업개발(주) 상무



지난 18년간 주택건설 현장시공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국내 최초로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 4DAY CYCLE 구현과 공사 사전 분석으로 부실공사를 방지하였으며, Line Stop제도 등 품질향상을 위한 시스템 및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주거용 건축문화의 새로운 장을 여는데 뛰어난 활약을 보였다.